

주간 테러동향

'25. 10. 24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- 韓, “신세계백화점 폭파” 협박글 게시 20대에 손해배상 청구
 - 10.16 경찰은 올해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며, 먼저 협박글을 올린 10대는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소송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
 - ※ 협박글 게시로 인해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는 취지에서 투입 인력의 출동 수당과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청구금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할 것이라 부언
- 韓, 국회서 5년간 무기류 6천여건 적발
 - 10.16 언론은 최근 5년간 국회 경내에 무기류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6천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총 6,096건의 무기류 물품이 적발 됐으며 도검류 5,179건, 공구류 558건, 가스총 127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도
 - ※ 같은 기간 국회 경내 소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146건 집계됐다 부언
- 韓, IP 우회 공중협박 범죄 증가하고 있으나 VPN 업체 규제는 미흡
 - 10.21 언론은 전국적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공중협박이 VPN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우회 IP를 활용해 반복되고 있지만 업체는 우회 IP 보관이나 수사 협조 의무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도
 - ※ 올 한해 게시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이며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작성된 폭발물 협박 글은 72건으로 전체의 72.7%가 집중되었으나 게시자 검거 사례는 8건

아프리카

- 예멘 후티 반군, 유니세프 주요 간부 포함 UN 직원 20명 납치
 - 10.20 언론은 예멘의 親이란 후티 반군이 자국 내에 위치한 UN 건물을 급습해 유니세프 예멘지부 대표를 포함한 직원 20명을 납치했다고 보도했으며,

UN의 예멘 상주조정관 대변인은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

※ 언론은 이날 납치된 직원들을 포함해 총 50여 명의 UN 직원이 구금 중이라고 부언

미 주

○ 美 국무부, 몰디브 여행주의 경보 격상

- 10.18 언론은 美 국무부가 몰디브 內 리조트·정부청사·교통요충지 등을 겨냥한 테러 위험이 사전경고 없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, 여행주의 경보를 2단계 「여행경계」로 격상하였다고 보도

※ 미국의 여행 경보 : 1단계 통상상태(대한민국, 일본 등), 2단계 여행경계(브라질, 몰디브 등), 3단계 여행재고(사우디아라비아 등), 4단계 여행금지(러시아, 이란 등)

○ 캐나다, 백인우월주의 新나치주의 성향 '무술조직' 확산세 주시

- 10.20 언론은 캐나다 정보당국이 히틀러 사상에 기반한 新나치 성향의 무술 조직 '액티브 클럽'이 미국·캐나다 등 27개국으로 확산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

※ 극단주의 전문가 "이들 단체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스스로를 자신의 나라를 되찾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글로벌 운동의 일부로 여긴다"라고 부언

○ 美, 애틀랜타 공항 총기 난사 예고범 체포

- 10.21 언론은 美 애틀랜타 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애틀랜타 허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 한 혐의로 「빌리 조 케이글(49)」을 체포, '테러 위협, 중범죄 수행 중 총기 소지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

※ 경찰은 공항 밖에 주차된 범인의 트럭에서 'AR-15' 반자동 소총을 발견

유럽

○ 네덜란드 등 유럽, 미국에 이어 안티파 테러지정 동조 움직임

- 10.21 언론은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안티파*(Antifa)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데 영향을 받아, 독일·네덜란드·헝가리 등 유럽 內 극우 진영에서도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

*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를 반대하던 반파시스트 그룹에서 유래된 단어로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극우를 반대하는 개인들의 운동이나 이념을 지칭한다고 부언

역사속 테러사건

알샤바브, 소말리아 바이도아市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18.10.13 소말리아 바이도아市 식당·호텔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16명 사망·50명 부상
 - 최초 폭탄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'베데르 식당'으로 들어가 자폭하였으며, 이후 다른 남성이 '빌란 호텔'에서 2차 자폭
- 이슬람 테러단체 "알샤바브"*는 사건 배후를 자처하며, '소말리아 정부 관리들이 많이 방문하는 두 장소를 공격목표로 삼았다'고 주장
 - * 同 단체는 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경한 해석을 강요하고,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2007년부터 소말리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테러를 지속 자행
- 특히, 소말리아 정부는 同 테러가 '18.10.12 알샤바브를 겨냥한 미국의 공습 하루 뒤 발생한 점을 고려, 알샤바브의 보복성 테러로 판단
 - ※ 또한, 同 테러는 알샤바브 소행으로 추정되는 모가디슈 폭탄테러('17.10.14, 587명 사망) 1주기 추모식을 하루 앞두고 발생

테러 단체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內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UN('10.4), EU('10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디리에」, 군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쏘域 및 케냐內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25.5 모가디슈 군기지(모집센터) 자폭 테러(군지원자 등 10명 이상 사망)
'25.3 히란州 호텔 총기 테러(사망 21명)
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